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 매년 50만 명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 일반대학 원을 포함)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 상황은 교육계열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574,009명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¹⁾ 중 337,904명이 취업하여 66.2%의 취업률²⁾을 기록함.
 - 교육계열별로는 의약계열 취업률이 82.8%로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 취업률이 56.0%로 가장 낮았음. 졸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사회계열(전체 졸업자의 26.5%) 취업률은 62.6%였고 공학계열의 경우 의약계열 다음으로 취업률(70.1%)이 높았음.
 - 취업자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1년 후 건강보험 자격상실률³⁾을 계산해 보면 의약계열(18.9%)과 공학계열(16.7%)은 취업 후 이탈자가 비교적 적은 반면, 예체능계열(34.6%)과 인문계열(25.8%)은 취업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취업 후 이탈자가 많았던 교육계열은 월별 초임⁴⁾도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 예체능계열의 경우 평균 월초임이 187만 원(계열별 최저), 인문계열의 경우 22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250만 원보다 낮은 반면, 의약계열(284만 원)과 공학계열(279만 원)은 상대적으로 평균 초임이 다른 교육계열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음.
 - 초임 급여의 대략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이 분석구간 중에서 상대적

1) 2017년 2월 졸업자와 2016년 8월 졸업자를 포함함.

2)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여기서 취업자란 조사기준일(2017년 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창업자, 프리랜서가 포함된 개념으로, 일반적인 고용통계에서 다루는 취업자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또한 취업을 규정하는 시기가 2017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졸업 후 첫 직장으로의 취업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음.

3) 조사기준일(2017년 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이후 1년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비율.

4)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회사명이 1개이면서,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되는 취업자(302,674명)를 대상으로 계산됨.

으로 고임금인 300만 원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각각 30.4%, 25.3%로 상당한 반면, 예체능계열(7.3%)과 인문계열(15.0%)은 그 비율이 가장 낮은 편임.

〈표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초임 급여 현황

(단위 : 명, %, 천 원)

	전체 졸업자 수	취업률	취업자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가입자 수	초임 급여 현황(월 소득액, 취업자 수)					300~ 400만 원	400만 원 이상
				평균	중위	100만 원 미만	100~ 200만 원	200~ 300만 원		
총 졸업자	574,009 (100.0)	66.2	305,263 (53.2)	2,496	2,095	9,994 (3.3)	127,530 (42.1)	100,553 (33.2)	35,158 (11.6)	29,439 (9.7)
인문계열	52,585 (9.2)	56.0	20,837 (39.6)	2,201	1,915	944 (4.6)	10,215 (49.4)	6,414 (31.0)	2,003 (9.7)	1,105 (5.3)
사회계열	152,335 (26.5)	62.6	78,824 (51.7)	2,411	2,000	2,975 (3.8)	35,563 (45.6)	24,802 (31.8)	8,239 (10.6)	6,465 (8.3)
교육계열	33,629 (5.9)	63.7	18,321 (54.5)	2,078	1,738	717 (3.9)	10,416 (57.4)	5,271 (29.0)	970 (5.3)	779 (4.3)
공학계열	145,643 (25.4)	70.1	86,082 (59.1)	2,790	2,409	1,874 (2.2)	25,814 (30.1)	31,706 (37.0)	13,451 (15.7)	12,626 (14.7)
자연계열	61,778 (10.8)	62.5	29,429 (47.6)	2,375	2,006	1,084 (3.7)	13,086 (44.8)	9,327 (31.9)	3,312 (11.3)	2,384 (8.2)
의약계열	58,537 (10.2)	82.8	45,100 (77.0)	2,835	2,353	577 (1.3)	15,125 (33.8)	17,723 (39.6)	6,001 (13.4)	5,341 (11.9)
예체능계열	69,502 (12.1)	63.0	26,670 (38.4)	1,871	1,665	1,823 (6.9)	17,311 (65.7)	5,310 (20.1)	1,182 (4.5)	739 (2.8)

주: 전체 졸업자 수 항목의 괄호 안은 각 계열별 졸업자 수 비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수 항목의 괄호 안은 계열별 총 취업자 중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비중, 각 임금 수준별 취업자 수 분포 항목의 괄호 안은 분석대상자 중 각 계열별 초임 급여 구간 해당자 분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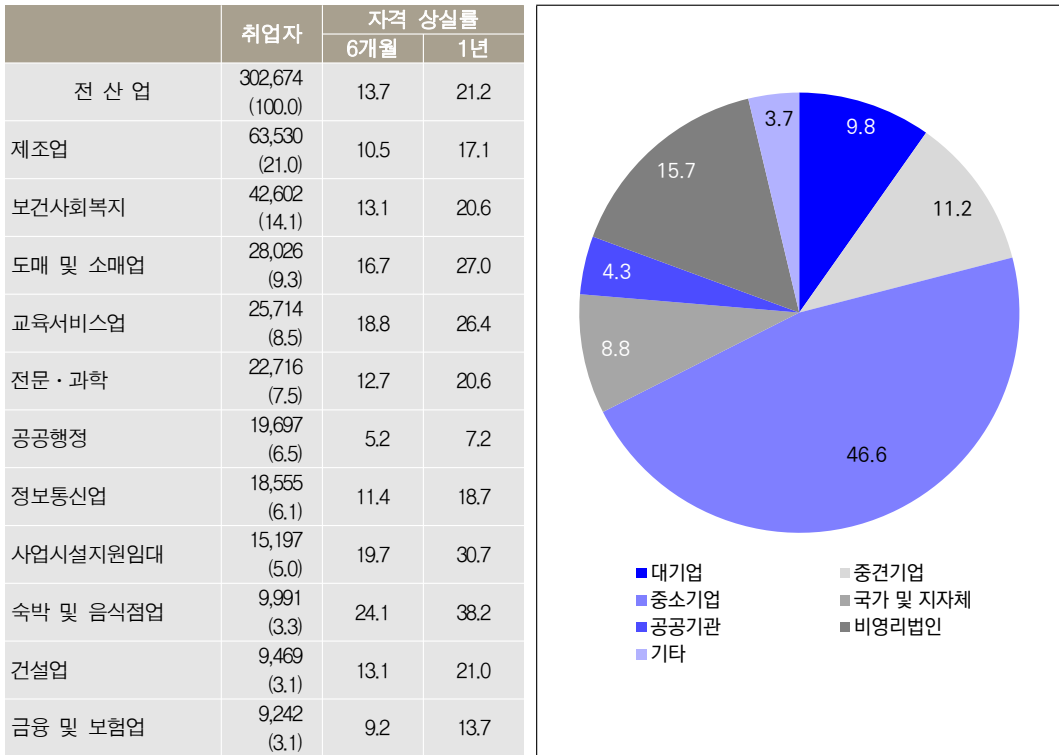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연보』 재구성.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되는 취업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 산업별로는 제조업(21.0%), 보건사회복지(14.1%), 도소매(9.3%) 순으로 많은 취업자가 분포했으며, 공공행정,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순으로 취업 후 이탈자의 비율이 낮았음.
 - 제조업은 가장 많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취업하는 산업(63,530명, 21.0%)으로 1년 이후 건강보험자격 상실률(17.1%)이 전 산업 평균(21.2%)을 밑돌아, 취업 후 이탈도 비교적 적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 공공행정(6.5%)은 취업자 비중이 큰 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분포가 작은

산업이었지만, 취업 후 이탈 비율이 극히 낮은 산업으로 비교적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라 여겨지는 산업적 특성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음.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졸업자의 비중이 9.8%로 비교적 낮았으며, 많은 수의 졸업자가 중소기업(46.6%)에 취업하고 있었음. 국가 및 지자체(8.8%), 공공기관(4.3%) 등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졸업자도 다수였음. **KLI**

[그림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상세 취업정보 확인 가능자) 주요 산업분류별, 기업유형별⁵⁾ 취업 현황 (단위: 명,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상세취업정보 확인 가능자 중 각 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연보』 재구성.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5)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